

국제유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60달러가 붕괴됐고 이란이 핵협상 타결로 수출을 본격화하면 40달러가 아니라 30달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20달러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OPEC이 산유쿼터 3000만배럴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셰일가스·오일 시추리그 수가 줄어들면서 60달러대를 유지했으나 셰일 생산량이 의외로 줄어들지 않고 중국 경제가 침체조짐을 본격화함으로써 수급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이란이 수출을 100만배럴 정도 확대하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30-40달러 수준으로 추락할 것은 분명하고 중국 경제에 따라서는 3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도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종식됨으로써 탈레반 및 IS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으로 좁혀지고 있다. 중국과는 협력과 대결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적대관계가 종식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도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결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당기간 40달러 안팎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간으로 보아서도 50달러 정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70달러대 안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유럽 및 중국 경제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이 2016년 또는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유가의 기준을 배럴당 40-50달러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연이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내기업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나프타가 떨어지면 재고손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을 반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 훗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눈앞의 이익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국제유가 강세를 고집한다고 그렇게 흐르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에탄 베이스 신증설을 본격화하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주력할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자금을 상승에 중동과 미국의 협공이 현실화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50달러에 나프타 40달러대 중반을 염두에 두고 경영 및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유가 50달러에 나프타 40달러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